

# 안산·김우진 양궁월드컵 4차서 개인·단체 2관왕



안산이 2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된 뒤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고 있다. <세계 양궁연맹 홈페이지 캡처>

## 한국 선수들 여자 개인전 금·은·동메달 싹쓸이 혼성전 안산·김제덕 4위 그쳐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정주시청)이 2022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안산은 2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이가현(대전시체육회)을 6-2(29-28 26-27 27-26 30-29)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이가현,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 결승에서 영국을 6-0(55-52 55-52 56-53)으로 몰리치고 우승한 안산은 이로써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르며 '2022 도쿄 올림픽 3관왕'의 위력을 뽐냈다.

여자 개인전 은메달은 이가현의 차지가 된 가운데,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강채영이 카타리나 바우어(독일)에게 6-2(27-27 29-27 30-27 29-29)로 이겨 동메달의 주인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선수들이 여자 개인전 메달을 '싹쓸이'했다. 올해 4차례 월드컵에서 한 나라가 특정 종목 메달을 다 가져간 것은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이 단체전과 개인전, 2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김제덕(경북일고), 오진혁(현대제철)과 함께 나선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스페인을 6-0(56-54 60-55 59-56)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개인전 결승에서는 마우로 네스폴리(이탈리아)에게 7-1(29-28 29-28 29-29 30-28)로 이겨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 중 김우진만 남자 개인전 8강에 올랐다. 한국이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2차 대회부터 참가한 가운데, 남자 대표팀은 2-4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가져가며 '최강'의 위용을 뽐냈다. 혼성전에서는 안산과 김제덕이 준결승에서 미국에 진 뒤 이날 동메달 결정전에서 브라질을 2-6(34-36 38-39 40-37 37-38)으로 겨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김윤희, 소재원(이상 현대모비스), 오유현(전북도청)이 출전한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 하나를 수확했다. 4차 대회까지 일정을 소화한 월드컵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대회만 남겨놓고 있다. 파이널은 10월 15-16일 멕시코 트라스칼라에서 치러진다. /연합뉴스

# KIA, 투·타 상승세 ... SSG 기세 넘는다

##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뜨거운 타격으로 안방에서 연승을 이어간다. 사직 원정으로 후반기를 연 KIA 타이거즈가 홈 6연전을 통해 승률 높이기엔 나쁘다. 주중 NC 다이나믹스를 상대로는 KIA는 주말에는 SSG 랜더스를 상대한다. 투·타의 흐름 모두 좋다. KIA는 토마스 파노니(5.1이닝 2실점)를 시작으로 양현종(6.1이닝 3실점), 이의리(7이닝 무실점) 등 좌완 '3인방'을 출격시켜서 후반기 첫 시리즈였던 롯데와의 원정경기를 풀어나갔다. 선발로서 임무를 완수한 세 투수는 타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두 선발승을 챙겼다. 임기영이 26일 선발승 릴레이를 이어가게 되는 가운데 선 볼리노 재활과 실전 점검을 끝내고 주중 NC전을 통해 1군으로 복귀하는 등 마운드 운영은 순조롭다. 타격은 뜨겁다. KIA는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 장단 54안타를 터트리면서 37점을 만들어냈다. 23일 경기에서 선발 전원 안타로 9-3 승리를 만든 KIA는 24일에는 KBO 기록까지 작성했다.

## 주중 NC·주말 SSG와 홈 6연전 뜨거운 방망이로 승률 높이기

KIA는 이날 3개의 홈런 포함 26개의 안타를 날리면서 23득점에 성공했고,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KBO 역대 최다 점수 차 승리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주축 선수들은 물론 교체 멤버로 들어간 선수들까지 거침없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KIA 타선의 힘을 보여줬다. 7월 주중했던 '캡틴' 김선빈도 달라진 모습으로 스윙스의 주역이 됐다. 김선빈은 올스타브레이크 전까지 8경기에서 27타수 5안타(타율 0.185) 2타점으로 부진했지만 후반기 3경기에서는 8개의 안타를 생산했다. 23일 4안타 행진을 펼친 김선빈은 24일에도 3안타를 기록하면서 3연전에서 5타점도 수확했다. 여기에 외야 경쟁도 전력 상승세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김호영이 특급 수비로 어필하고 있는 가운데 이창진, 이우성, 김석환은 타석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좌익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창진은 두 경기 연속 3안타를 만들었고, 이우성도 24일 대

타로 들어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후반기 4개의 안타를 적립했다. 김석환은 24일 나성범을 대신해 타석에서 서서 시원한 스리런을 장식하는 등 남다른 파워를 보여줬다. 올스타브레이크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타자들의 힘을 앞세워 KIA는 '열세 만회'에 나선다. 주말 SSG와의 대결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KIA는 1위 독주에 이어가고 있는 SSG에 올 시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9번 만나 단 한 번 승리를 가져오는 데 그쳤다. 전반기 '강약약'의 흐름을 보였던 KIA는 안정세로 접어든 선발, 매서워진 공격으로 SSG전 진점 승부에 나선다. 볼리노의 복귀 속 전반기에 선발로 투입됐던 한승혁 카드를 남겨놓은 만큼 마운드 운영 폭이 넓어졌다. 김선빈의 상승세 속 황대인도 감을 잡았다. 황대인은 24일 경기에서 홈런 포함 5안타를 펼치면서 눈길을 끌었다. 황대인은 8회 최준용을 상대로 장석한 솔로포로 두 자릿수 홈런도 채우는 등 타선의 무게감을 더했다. 강렬하게 후반기 스타트를 끊은 KIA가 상승세를 타고 SSG의 기세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리그 레전드 원년을 빛낸 '스타 4인' 박철순(시계방향으로), 이만수, 김성한, 백인천의 이미지. <KBO 제공>

# 임성재 14언더파 ... PGA 투어 3M 오픈 준우승

## 김주형 공동 26위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 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임성재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이크의 TPC 트윈시티스(파71·743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기록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의 성적을 낸 임성재는 에밀리아노 그리오(아르헨티나)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로서는 이번 시즌 들어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 우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다. 6월 초 메모리얼 토너먼트 공동 10위 이후 약 2개월 만에 '톱10' 성적을 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 이후 3개 대회에서 두 번 컷 탈락에 지난주 디오픈 공동 81위 등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준우승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임성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바람이 불어 점수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경기했다"며 "리더 보드를 전반 끝내고, 또 17번 홀 즈음에서 확인했는데 5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홀은 투온을 노렸는데 생각대로 돼서 버디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승은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친 토니 피나우(미국)에게 돌아갔다. 피나우는 2016년 푸에르토리코오픈, 지난해 8월 노던 트러스트에 이어 투어 3승째를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35만 달러(약 17억6000만 원)다. 피나우는 마지막 18번 홀(파5)을 앞두고 4타 차 선두였을 정도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 스코터 피어시(미국)에 5타 뒤진



임성재가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이크의 TPC 트윈시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 오픈 마지막 라운드 10번 홀에서 티샷한 뒤 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 3위였으나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1~3라운드 내내 선두를 놓치지 않았던 피어시는 이날도 6번 홀(파5)까지 2타를 줄이며 20언더파를 찍고 2위와 격차도 5타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그러나 8, 9번 홀에서 연속 보기에 이어 14번 홀(파4)에서는 티샷이 병커에 박혔고, 두 번째 샷이 병커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세 번째 샷은 물에 빠지며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 결국 피나우에게 역전

을 허용했다. 7번부터 18번 홀 사이에만 7타를 잃고 13언더파 271타, 공동 4위로 밀려났다. 임성재는 마지막 18번 홀 버디로 공동 2위가 됐고,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그리오의 약 2.5m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공동 2위가 확정됐다. 김주형(20)은 5언더파 279타로 공동 26위, 노승일(31)은 3언더파 281타로 공동 38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 김성한, 오늘 챔필 그라운드 오른다

## 1982년 타율 0.305·10승 투수 박철순·이만수·백인천과 함께 KBO 40주년 레전드 추가 발표

독특한 타격폼으로 '오리 공동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레전드' 김성한이 26일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 오른다. KBO가 리그 4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레전드 40인 중 4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KBO는 16일 올스타전 현장에서 최다 득표 레전드로 선동열(해태), 최동원(롯데), 이종범(KIA), 이승엽(삼성)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어 25일에는 KBO 리그 원년인 1982년, 상징성 있는 기록과 활약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박철순(OB·11위), 이만수(삼성·12위), 백인천(MBC·24위), 김성한(해태·25위) 등 4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레전드로 선정된 선수들의 시상은 전 소속 구단 홈 경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성한의 시상식은 26일 광주 NC-KIA전에서 이뤄진다. 김성한은 홈런 타이틀을 3차례 차지한 KBO 리그 최장기 강타자이자 투타를 오가며 활약한 원조 '이도류'였다. 그는 1982년 타석에서는 타율 0.305(10위)에 97안타(3위), 13홈런(4위)을 기록하며 최다 타점인 69타점도 만들었다. 마운드에서는 26경기에서 나와 평균자책점 2.79의 기록으로 10승(1 완봉승 포함) 5패 1세이브를

수확하며 승리 7위, 평균자책점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KBO 리그에서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승수와 두 자릿수 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유일한 선수다. 또 김성한은 1989시즌 KBO 리그 최초로 26홈런, 32도루를 기록하며 20-20 클럽에 가입했고, 정규시즌 MVP 2회(85-88년), 골든글러브 6회(85-89, 91년)를 차지했다. 그가 해태에서 활약한 14시즌 동안 팀은 7차례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한편 '불사조'로 불리는 박철순은 KBO 리그 원년인 1982년 1.84의 평균자책점으로 24승, 승률 0.857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MVP를 차지했다. 22연승이라는 그의 최다연승 기록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헬크' 이만수는 1982년 3월 27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MBC와의 개막전에서 1회 2루타를 날리며 KBO 리그 첫 안타와 타점 주인공이 됐고, 5회에는 KBO리그 첫 홈런 역사도 장식했다. KBO리그 최초의 100홈런, 200홈런을 달성한 그는 1984년 타율·홈런·타점 1위에 오르면서 KBO리그 최초 타격 3관왕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백인천은 설명이 필요 없는 '원년 타격왕'이다. 그가 1982년 기록한 0.412의 타율은 40년간 아무도 깨지 못한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는 또 KBO 리그의 유일무이한 4할 타자이자 유일무이한 감독 겸 선수라는 역사도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